

• • •
신년사

방재기술의 전문화와 국제화에 매진하겠습니다.



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은 온누리에 희망과 힘찬 용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.

지난 해에는 국민 모두가 겪어보지 못했던 대형 사건·사고로 참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인명까지 잃어가면서 고도 성장의 교훈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였습니다. 세계는 우리가 사건으로 머뭇거릴 때 미래를 향한 개혁과 도전으로 무한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.

금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른 해보다 큰 희망속에 힘찬 용기를 갖고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마음을 다잡아 나아가야 합니다. 그래야만 지난 날의 재난 속에 묻혔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며, 또한 상실했던 국제적 신용과 국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인 국민소득 1만불 시대와 수출실적 1천억불 달성, UN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피선 등은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동반자로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. 이러한 배경에는 필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요소 요소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.

방재전문기관인 저희 협회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시험연구, 교육 및 홍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. 지난해부터 협회가 방재기술의 보급을 위한 역점사업으

로 번역한 NFC(미국화재안전기준) 한국어판은 안전분야의 필수서로 자리잡았으며, 각종 방재관련 기술서적도 국제화재전시회 홍보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발간 보급을 요청받고 있습니다.

또한,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금년 9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부터 KOLAS 국가공인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이어 10월에는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차음구조 및 방화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, 일본해사협회(NK)로부터도 시험기관 인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·외적으로 방재전문기관으로 공인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

'96년도에는 손해보험 위험관리기능에 역점을 두고 방재기술의 전문화 및 국제화에 매진할 계획입니다. 특히,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인증 및 시험업무를 거친 각종 방화제품성능이 국제적 평가에 손색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험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. 또한,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화재안전기준(KFS)의 제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방재전문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 계획입니다.

지난 한 해동안 협회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특수건물 소유주, 사원사, 관련 기관,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회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재전문기관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㉞

1995. 원단

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정 왕 선